자연환경의 보호

밀렵 대책

희귀 고유종 동식물의 밀렵과 채집은 얀바루의 다양한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표적이 되는 것은 대부분 가장 취약한 야생생물종입니다. 밀렵으로 인해 그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최악의 경우 멸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서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렵이나 위법한 채집은 산림의 생태의 조화에 있어서 끊임없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성, 산림청, 구니가미촌, 오기미촌, 히가시촌의 직원, 경찰, 기타 관련 조직 및 지역 주민은 정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고 모든 방문자에게 얀바루 고유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드킬 대책

얀바루의 숲길은 고유종과 희귀동물이 서식지를 지나다가 자동자 사고로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유일의 날지 못하는 새로 멸종위기종인 얀바루쿠이나는 이른 아침과 저녁에 야행성 류큐긴꼬리자이언트쥐는 야간에 사고가 다발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펜스나 지하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다발하는 현장에는 운전자에 주의 환기를 위한 표지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계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침입종의 침입 저지

얀바루에서는 침입종 동식물의 침입이 생태계의 조화를 붕괴시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 세기 초기에 쥐나 뱀을 구제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도입되었던 몽구스를 없애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몽구스는 오히려 날지 못하는 얀바루쿠이나를 비롯하여 얀바루 재래식물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환경성과 오키나와는 '몽구스 버스터즈'라고 불리던 전문가 단체와 협력하여 울타리와 덫을 사용하여 얀바루 지역에서 몽구스 구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 고양이를 없애고 집 고양이의 사육 관리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침입종 식물은 차량, 사람들의 의복, 기타 수단으로 침입하여 급속도로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덩굴등골나물(*Mikania micrantha*)나 공심연자초(*Alternanthera philoxeroides*) 등과 같이 침입종의 피해가 막대했던 일부 식물에 관해서는 조기 발견과 구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귀종의 보호

희귀종의 밀렵과 채집은 개인적인 수집부터 대규모 사업활동까지 다양합니다. 밀렵 증거는 얀바루에 머물지 않고 호텔, 공항, 펫숍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밀렵과 채집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도로 순찰 감시 강화, 각종 개체수의 모니터링, 팸플릿과 광고 자료로 계몽 활동 및 지역 자원봉사와의 협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